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11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 **CUOMO** 주지사, 전미 국민투표 협약에서 뉴욕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법률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전미 국민투표 협약에 가입한 주들의 명단에서 뉴욕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법률에 서명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주의 모든 표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번 법률(S.5478/A.6044)은 협약에 가입한 주가 해당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표를 전국적인 국민투표에서 다수를 차지한 후보자에게 부여하기로 약속하는 주 상호간의 협약에 뉴욕주를 추가했던 법률로서 2014년에 Cuomo 주지사가 [서명한 법률](#)을 개정합니다. 원래의 법률에서는 협약이 전국적으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 뉴욕주가 2018년 말에는 협약에서 탈퇴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새로운 법률에서는 이 만료일을 삭제했으며, 뉴욕주를 전미 국민투표 협약을 지지하는 주들의 명단에 영구히 유지시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모든 표가 동등하게 취급받도록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뉴욕주를 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킵니다. 전국적인 국민투표를 구속력 있는 것으로 만드는 조치를 통해서, 모든 국민의 소리가 경청될 수 있게 되고, 후보자들이 모든 주의 투표자들에게 호소하게 조장할 것입니다.”

전미 국민투표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뉴욕주는 50개 주 전부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이루어진 전국적 국민투표의 승자에게 뉴욕주의 선거인단 표 29개를 부여하기로 약속했지만, 그 효력은 대통령 선거인단의 538개 표 중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다른 주들이 충분히 동일한 법률을 통과시킨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현재 이 협약은 필요한 270개의 표 중 165개의 표만 확보하고 있습니다(61%).

미국 헌법 제2조 제1항에서 해당 주가 선택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선거인단 표를 부여할 수 있는 전권을 각 주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연방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다른 47개의 주와 마찬가지로, 뉴욕주도 뉴욕주에서 이루어진 국민투표의 승자가 그 선거인단 전원을 차지하는 승자 독식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1789년에는 3개 주만 사용하던 것입니다.

전미 국민투표 법률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충실합니다. 현행 승자 독식 방식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은 뉴욕처럼 확실한 공화당 및 민주당 지지 주들을 무시하고

모든 관심과 자원을 민주 및 공화 양당의 초접전 경합 주의 특정 그룹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후보자들은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중요한 많은 문제들에 집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현 방식은 미국을 빨강색, 파랑색 그리고 경합 주로 인위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뉴욕은 1,300만 명이 넘는 유권자를 보유한 미국의 4위에 해당되는 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유세 비용 지출에서 꼴찌를 차지하는 등, 이 시스템의 피해자입니다.

**상원의원 Joseph Griff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선거일이 도래함에 따라, 뉴욕 주민들은 그들의 대통령 투표권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저는 뉴욕주가 전미 국민투표 협약에 가입하게 허용한 법률을 발의했던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오늘 주지사가 서명한 개정 법률은 이제 주 상호간의 이 협약에 가입할 충분한 시간을 더 많은 주들에 제공할 것입니다. 전미 국민투표 협약은 뉴욕주를 그 지위에 상응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후보들이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결정했던 소수의 승자 독식 전장에 해당되는 주들에서만 싸움에 따라, 우리 주가 무시되거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21세기에는 모든 투표권이 실제로 계산되어야 하며, 이번 법률은 헌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민주적 이상을 성취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원의원 Jeffrey Dinowit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반드시 승자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미 국민투표 협약은 이를 바꿀 것이며, 이는 모든 주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의 표가 동등하게 계산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뉴욕은 대통령 선거에서 방관자에 불과하며, 후보자들은 격전지에 해당되는 주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뉴욕의 문제가 중요하고, 뉴욕 주민들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뉴욕주에서 전미 국민투표 협약의 발의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협약이 뉴욕주에서 계속 유지되게 만들 이번 법률에 서명한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이 협약은 현재 다음 10개 주에서 법률을 통해 입법화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뉴욕,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및 워싱턴. 또한, 워싱턴 D.C.에서도 입법화되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